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과 일터의 변화, 노동자운동의 대응

김 하 님 (전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국장)

목 차

1. '아틀라스'가 보여주는 풍경
2. 인공지능과 노동
3. 시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대응

“노사합의 없이 생산현장 투입 안 돼”

“21세기형 리더십”

“혁신 발목 잡기”

“주가 올랐는데 노조가 반대”

“피할 수 없으니 빨리 적응하라”

⋮

“AI 적응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몫”

“AI 시대에 발맞춰 사회의 변화와 준비 필요”



기술결정론적 편향

- “기술이 사회의 구조·문화·제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
- “기술 발전은 인간의 의지나 사회적·문화적 조건과 관계없이 그 자체의 동력으로 이루어지는 독립적·필연적 과정”
- “사회와 사람은 기술에 적응해야 하는 수동적 존재”

“인쇄술이 지식 생산과 유통을 확대했다.”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가전제품이 가사노동시간을 줄였다.”

“AI가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다.”

“AI가 디스토피아를 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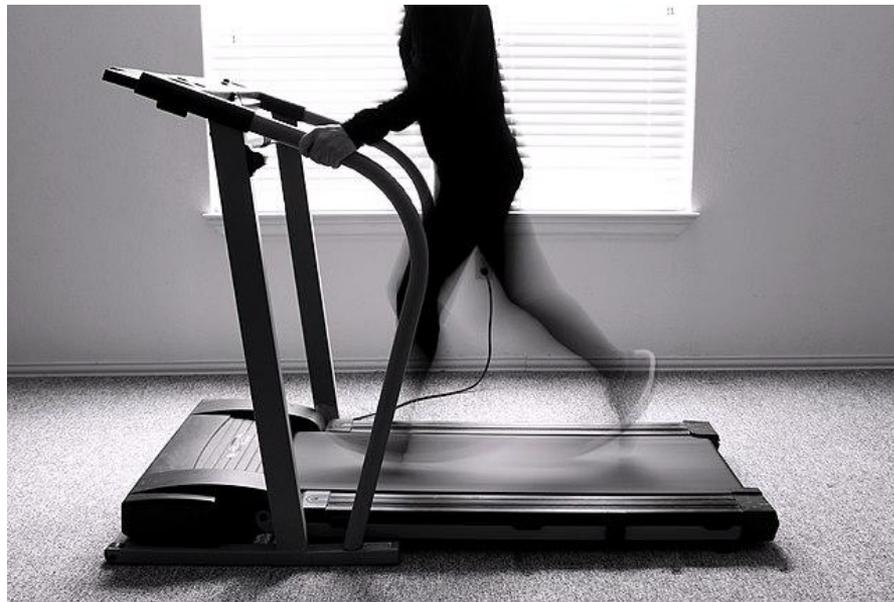
“콜센터 상담사는 AI 도입으로 없어질 직종으로, 정규직 전환 논의가 필요 없다.”

“AI 확산을 절대 피할 수 없다. 빨리 적응해야 한다.”



산업혁명 당시 자본가들은 아동노동을 통해 인건비 감축은 물론 기계 생산 비용 절약도 할 수 있었다. 1833년 공장법 개정으로 아동노동이 금지되자 기계도 달라져야 했다.

트레드밀 : 고문기구 vs. 운동기구



고문이 정당화되는 사회에서는 고문 기술이 발전한다.
고문에 반대하는 인권운동이 인권 실태를 바꾸면서 기술도 재구성했다.

공작기계는 처음부터 노동자를 배제하는 자동화 수단이었을까?



녹음방식 제치고 NC 공작기계

정밀한 기계 부품을 대량으로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부품을 일일이 손으로 만들기보다 부품의 특성을 수치로 기록해 기계에 입력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만들게 하면 편리할 것이다. 20세기 중반에 개발된 수치제어(NC, Numerical Control) 공작기계는 바로 이런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기계 산업의 역사에서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수치제어 방식이 당시의 유일한 대안은 아

니었다. 또한 긍정적인 효과만을 낳은 것도 아니었다. 수치제어 방식은 경쟁상대인 녹음재생(record playback) 방식과 맹맹한 걸전을 거치다가 당시의 특수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 '운 좋게' 선택됐을 뿐이다.

자동차 헬리콥터 비행기 등 복잡한 기계들이 20세기 중엽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정밀한 금속절삭과 기계가공이 필요해졌다. NC 기계는 이런 배경에서 개발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그림). 이 기계는 제

주도권

기술적 경제적 면에서 수치제어(NC) 방식과 녹음재생 방식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이 중 수치제어 방식이 채택된 데는 공군의 막강한 지원과 노동자를 쉽게 통제하려는 경영진의 의도가 숨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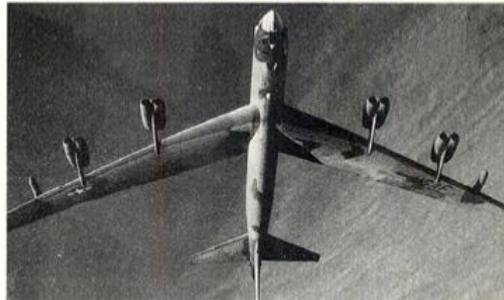
홍성수
서울대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어장치 동작검출부 기계동력부 공작기초체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을 움직인 '큰 손'

제어장치에는 가공할 대상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길이 넓이 사용공구 가공순서 등)를 담은 자기 테이프가 입력된다. 이때 정보는 수치화된 상태로 테이프에 기록된다.

제어장치는 테이프 내용을 해석해 펄스열 전기신호 등으로 변환시키고, 이 신호가 기계의 나머지 부분에 입력돼 모터를 작동시킴으로써 공작기계는 재료가 공을 시작한다. 따라서 이전처럼 숙련된 노동자가 기계를 다룰 필요가 없어졌다. 프로그램을 제작해 입력



공군은 전투기 개발에 NC 기계가 적합하리라 판단했다.

한편 NC 기계는 부속품이 단순하고 많은 노동자가

(그림) NC 공작기계의 기본구성

녹음재생 공작기계

- 노동자 움직임을 기록해 재생
- 높은 생산성과 유연한 사용
- 노동자가 기계를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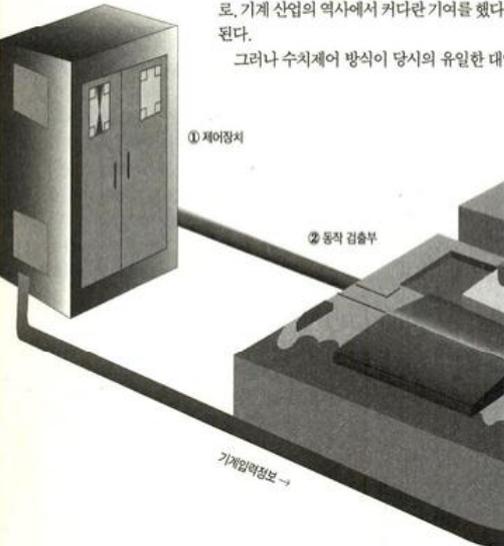
수치제어(NC) 공작기계

- 수치 데이터를 입력해 작동
- 복잡한 무기, 항공기에 적합
- 탈숙련과 인력 감축

VS.

정안이 시작되기 전 프로그램 과정에서 오차를 제거할 수 있었다.

공군은 각 부분의 숙련 노동자를 구해 녹음재생 방법을 활용하는 것보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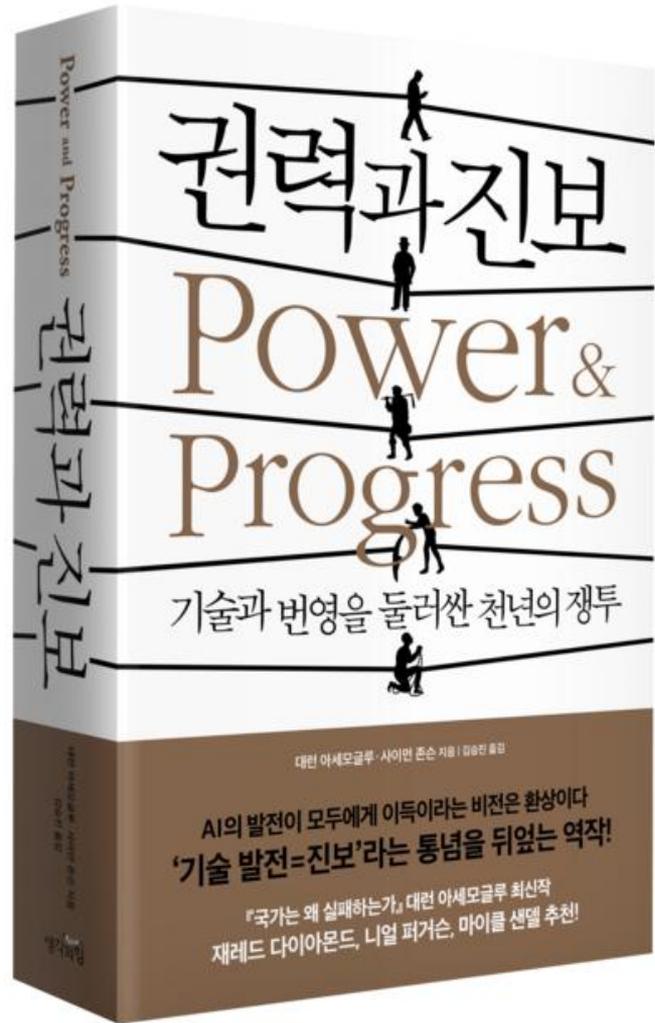
‘현재’를 유보하는 ‘공유된 번영’이라는 환상

- “기술은 중립적이고 모두에게 공평한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다.”
- “실업 등 기술 혁신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일 뿐”
-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 “(현재의) 삶과 권리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앞선 세대보다 더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는 이유는 앞 세대들이 기술과 노동 여건에 대해 상류층이 좌지우지하던 선택에 도전했기 때문”

산업혁명 초기 직물공장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를 집중시켰지만 노동자들의 소득은 100년 가까이 늘지 않았고 오히려 장시간 노동과 가혹한 생활환경을 견뎌야 했다. 노동자들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선거권의 확대, 노조의 부상, 노동자 권리 보호의 법제화 덕분이었다.

- 대런 아세모글루 & 사이먼 존슨, <권력과 진보>



기술이 여성을 가사노동에서 해방시켰는가?

세탁기



1908년



2026년

청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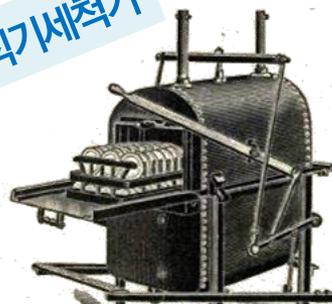


1901년



2026년

식기세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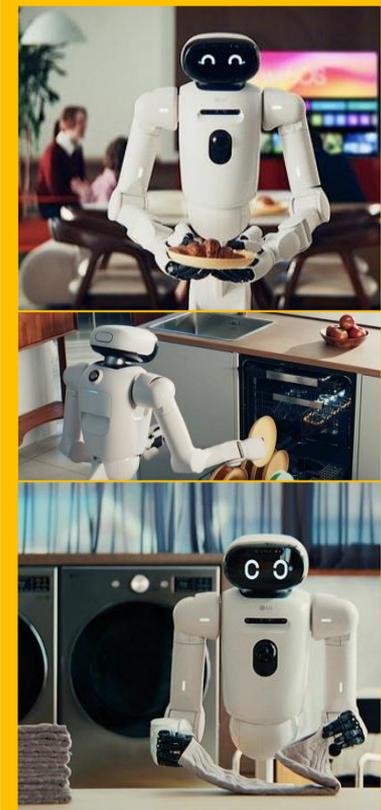


1886년



2026년

...



세탁기의 배신 또는 세탁기와 사회의 상호작용

- (성별 분업의 변화) 무거운 이불빨래와 같이 남성의 노동으로 여겨지던 일들을 여성이 하게 되었다.
- (청결과 위생의 기준 변화) 옷을 더 자주 갈아입어 빨래의 양과 빈도가 늘었다.
- (상업용 세탁업자와 가사도우미 감소) 가정용 세탁기의 보급으로 세탁소에서 하던 일이 가사노동으로, 가사도우미의 일이 여성 주부들의 일로 전환되었다.
- (강력한 가족이데올로기의 부상) 가사노동의 작업 성취 수준이 곧 가족에 대한 사랑의 척도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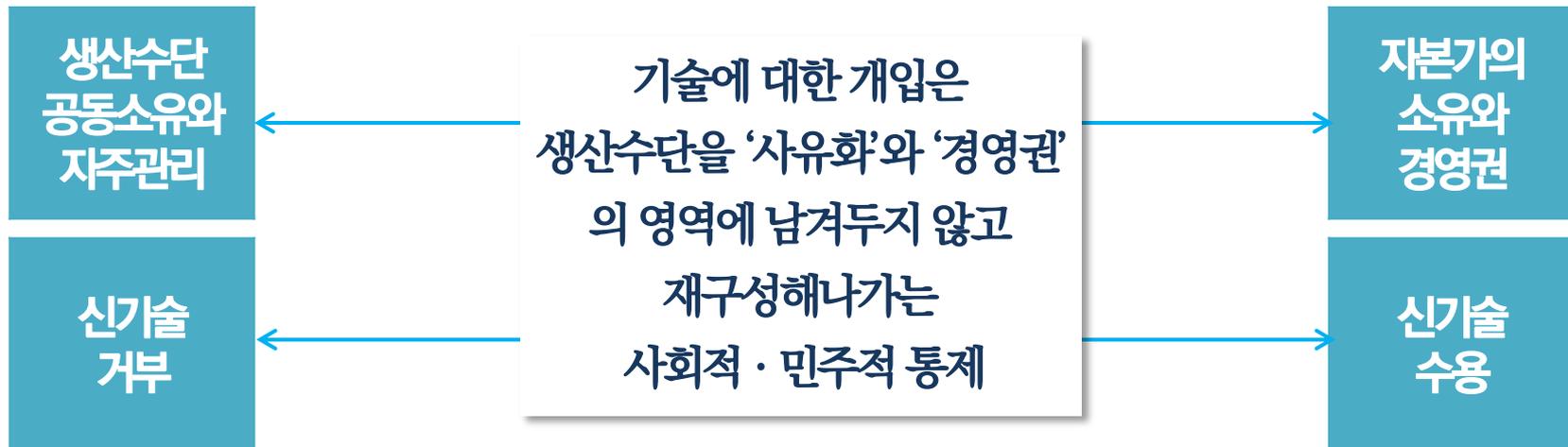
21세기형 러다이트?

- 러다이트 운동 : 기술 변화에 따른 생존권 위협에 대한 저항, 기계 파괴를 동반
- 1810년대, 의류산업 노동자(특히 숙련공)들의 세상은
 - 기술 변화에 따른 탈숙련화와 실업, 적응할 시간도 없는 신형 기계 도입
 - 나폴레옹 전쟁과 유럽 시장 붕괴, 의류산업 침체, 신규 일자리 창출 제한
 - 노조할 권리 없는 <단결금지법>의 시대
- 노동3권이 헌법에 명시된 21세기에도 반복되는 기술 변화에 따른 생존권 위협

생산수단으로서의 기술

- ‘기계 대 인간’이라는 대립구도는 왜 빈번히 등장하는가?
-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기술’은 곧 ‘생산수단’, 즉 자본
- 노동의 소외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외를 포함한다
- 기술이 ‘경영권’의 영역에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노동자를 공격할 수 있는 존재

‘사유화’와 ‘사회화’의 거리 / 기술 수용과 거부 사이



목 차

1. '아틀라스'가 보여주는 풍경
2. 인공지능과 노동
3. 시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대응

일자리

시는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

시는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

시는 일을 줄인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AI는 일을 줄인다.



• 일하는 시간 줄이기 (노동시간 단축)



• 더 편하게 일하기 (노동강도 완화)



• 일하는 사람 줄이기 (인력 감축)



• 일하는 방식 바꾸기 (노동과정 변화)



• 새로운 일 하기 (산업 확장/재편)



AI는 일을 줄인다.

어느 경로를 선택할 것인가?

AI 개발의 방향과 속도, 노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입법 등에 관한 판단의 문제이자 투쟁과 타협의 결과물

AI는 일을 줄인다.

이런 판례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면?

“신기술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유로 ...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AI는 일을 줄인다.



- 일하는 사람 줄이기 (인력 감축)

하나의 경로만이 주로 관철되는 이유는...

- 일자리 축소(인건비 절감) 원하는 세력이 그런 목적으로 AI를 개발하고
- 노동시간 단축 등 다른 선택지들을 애써 삭제하거나
- AI 개발과 도입을 둘러싼 권력의 격차를 방치하기 때문

‘완전 자동화’의 환상

- ‘완전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전제
- 가능하면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추구하는 경향
- ‘노동하지 않는 삶’이 좋은 것이라는 가치관
- 뇌-몸, 정신-육체, 지능-노동을 분리할 수 있다는 이원론적 사고

노동

- 노동은 자연을 가공하고 조직하는 의식적인 생산 활동
- 노동자의 머릿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결과의 실현

-칼 마르크스



스티븐 호킹 박사 "인간의 뇌를 하나의 컴퓨터 위에 복사, 사후에 생명 불어넣는 것 이론상 가능"

호킹이 위대한 물리학자 호킹으로 '활동'하는 것은 그의 뇌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간호사, 비서, 엔지니어, 지도학생, 동료 연구자, 가족 등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수십 년 동안 호킹이 물리학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들이 그저 호킹이 지시한 일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호킹의 과학적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발전하고, 확산되는 과정에 함께 참여했다. 물리학자 호킹은 그 자신의 천재적인 뇌 안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고 그 속에서 존재했다.

- 전치형, <사람의 자리 과학의 마음에 닿다>



분업의 재조직화

AI가 어떤 일을 담당하는가? 남은 일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누는가?

“힘들거나 위험하거나 지루한 일은 기계가 하고,
인간은 안전하고 여유롭게 일하며 일을 통한 자아실현을 추구한다.”에 대해...

**Q4. 최근 1년 내 귀사 고객센터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다고
생각하시는 상담사 트렌드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n=241)**

다중 선택형

응답 수 : 241

“단순 민원과 간단한 안내는 챗봇이,
복잡하고 난해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담은 사람이...”
실적 압박 ↑, 노동강도 ↑, 감정노동 스트레스 ↑
소진감과 피로도 ↑, 자진 퇴사 ↑



커리어/경력 개발



모바일 맵포 확대

원청 정규직의 대면 업무가
콜센터 비정규직의 비대면 업무로



셀프계산대·키오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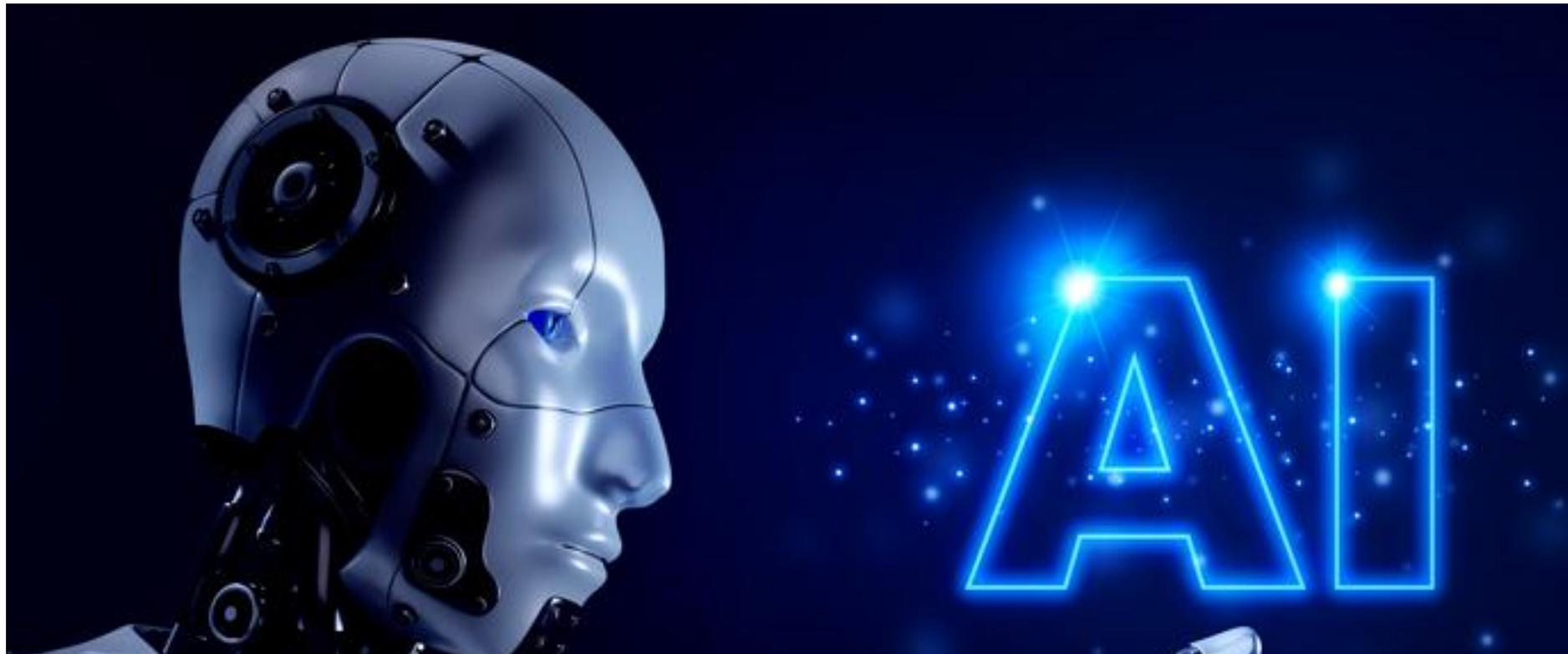
(비정규직, 알바) 노동자의 업무가
소비자의 무급노동으로



콜센터 상담 자동화

아예 사라지는 노동

- 친절하고 유연한 응대 감소



인간 노동의 비가시화

‘완전 자동화’ 신화 속에서 어떤 노동이 가려지는가?



코발트: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대형 IT 기업이 '아동 노동' 착취로 법정 선다

BUSINESS • TECHNOLOGY

Exclusive: OpenAI Used Kenyan Workers on Less Than \$2 Per Hour to Make ChatGPT Less Toxic



오픈AI, 챗GPT 디톡스를 위해
시간당 2\$ 미만으로 케냐 노동자 사용



통신 선로를 설치, 유지보수를 위해
맨홀, 지하에 들어가고
건물 외벽, 전봇대, 옥상에 매달리는 노동자들.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재정하라!

2016년 5월28일 구의역 9-4 승강장 안전용을 고치다
유명을 달린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이 우리 곁을 떠나지 4년..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주요의 벽 : 5월 20일 ~29일 구의역 내선 9-4, 강남역 내선 10-2, 성수역 10-3

구의

노동의 비가시화가 노동권 후퇴와 위협으로...
안전을 위해 만든 자동 개폐 스크린도어가
유지보수 노동자의 안전은 지키지 못했다.



AI가 계산? 사실 인도인 1000명이 일했다...아마존 무인 매장 없애는 이유

입력 2024.04.05 15:30 | 수정 2024.04.05 15:30



김영은 기자



‘완전자동화’ 경쟁이 빚어낸 조작극
‘AI 자동화’라는 포장지 뒤에 인간의 노동을 숨기다

의사결정의 원격화·관제화

많은 자동화 기술은 의사결정 권한을 노동자에게서 박탈해 원격화하는 데 오히려 더 큰 목적이 있다. 19세기 이후 산업 자본가들은 자동화 자체보다 이 부수적 효과를 더 주목했다. 공장을 기계화하면서 생산 현장으로부터 경영자가 있는 사무실(원격지)로 의사 결정권을 이전할 수 있었다.

- 김지연, <AI와 노동, 관계론적 접근>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중단하기로...서울교통공, 검증위 의견 수용

장병극 기자

철도경제신문 | 입력 2024.12.11 17:46

2호선 본선 자동운전 신호시스템·차량 도입 마쳐
안정성검증위, 시설 노후화·대규모 개선투자 전제돼야
수송인원 가장 많아, 곡선승강장 다수...안전문제 위험
연구결과, 1인 승무시 체감위험도 기존대비 23~32.7% 증가

알고리즘 관리와 노동 통제

- **인사노무 자동화**: 담당자와 중간관리자 역할 축소와 고용불안을 넘어 모든 노동자를 시에 대해 '영향 받는 자'로 만드는...
- **알고리즘 관리**: 채용, 평가, 상벌, 승진, 해고 등의 인사와 업무 배정, 작업 지시, 노동자 모니터링, 노동시간과 임금 계산 등의 노무관리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해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

#YTN 사이언스

아마존, 여자만 탈락 AI 채용프로그램 폐기

일감 배분 알고리즘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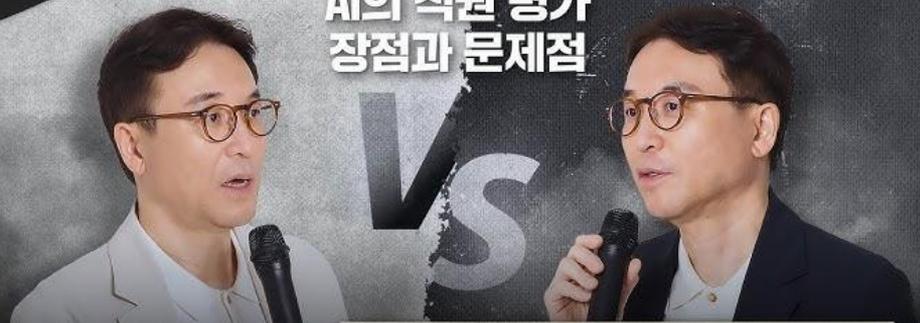


연합뉴스TV

kbc 흑백 인터뷰 1인 2역 토론 콘텐츠

kbc 한국생산성본부

AI의 직원 평가 장점과 문제점



내 성과, AI가 평가한다!



미국서 주목받는 AI 이젠 정리하고 대상도 결정하나

A photograph of a Whole Foods Market storefront. The building is a modern, multi-story structure with a light-colored stone or concrete facade. The 'WHOLE FOODS MARKET' logo is prominently displayed in large, green, 3D letters on the upper part of the building. Below the logo, there are large glass windows showing various food items and produce. The sky is overcast, and a car is visible on the street in the foreground.

WHOLE
FOODS
MARKET

아마존 소유의 슈퍼마켓 체인 홀푸드 마켓은 '인터랙티브 히트맵'이라는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여 미국 전역 510개 매장을 모니터링하고 **직원 충성도, 이직률, 인종 등의 기준에 따라 각 매장별 노동조합 관련 위험 점수를 부여**하여 논란이 되었다.

노동자 간 상호작용 시간을 분 단위로 추적하여 '업무 외 시간'으로 분류한다. 이 시간들이 하루에 30분 이상 누적되면 서면 경고를 받을 수 있다.



텔레퍼포먼스라는 다국적 콜센터 운영기업은 재택근무 노동자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특수 웹캠과 AI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책상 정리 상태와 근무 중 이석이나 식사 등의 행동 모니터링, 주변의 사물 식별, 18세 미만 자녀의 개인정보 수집, 지문사진을 포함한 생체정보 공유, 회사가 필요하다고 여길 때 거짓말 탐지기 검사 실시 등을 시행하거나 추진하기도 했다.

알 권리, 참여할 권리, 노조할 권리, 존엄할 권리

- 노동자의 지식을 경영진에게 이전시켜 독점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는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기준, 결과, 평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 의사결정이 인간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때, 설명이 불가능하거나 책임 소재
가 모호할 때,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노동자가 알지 못할 때...
단체교섭의 의미 약화와 노조 무력화
- 노동자의 자율성 축소, 일에 대한 만족도와 존엄성 훼손

의사결정 원격화 X 알고리즘 관리

- 의사결정 원격화와 알고리즘 관리를 통한 고용관계 및 조직형태 외부화
-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증가
- 전통적 노동법 체계로 포괄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이슈 부각
-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 확대 either/or/and 일하는 사람 기본법...

AI에 대한 맹신, 노동자에 대한 불신

-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편견 없는 기술?
- 노동자의 판단을 불신하고, 현장의 인간-기계 협응을 무시한 채 ‘전문성’과 ‘기술력’을 맹신했을 때…



영국 우체국 호라이즌 스캔들

- 회계시스템 호라이즌의 오류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보고 무시
- 대형 오류가 발생하자 노동자들의 회계 부정 및 절도 의심
- 1999~2015년 지점장 및 점원 700명 이상이 투옥 또는 파산, 13명 자살
- 시스템 오류 확인하고도 10년간 방치되다가 2024년 TV드라마 방영 후 비판여론 들끓자 구제, 명예회복

한국 우체국 집배부하량 시스템



- 집배노동자 배달 물량 산출하기 위해 2017년 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 도입
- 집배 업무를 세분화해 노동자의 동작과 동선을 초 단위로 계산, 여유율 3% 적용
- 노동조합은 이 시스템이 실제 업무 실태를 반영하지 못해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초래한다며 꾸준히 폐기 요구
- 우정사업본부는 '전문가들이 개발한 시스템'이라며 시스템 운용 지속
- 4년간 46명이 과로사, 자살, 사고사 등으로 목숨을 잃은 후에야 시스템 폐기



자동차 산업의 AGV(자율주행운반차)

- 현장 노동자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데이터와 알고리즘만 믿고 도입했을 때...

노동자의 역량 강화 vs. 종속성 강화

- 어떤 자동화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 또한 그 기술이 적용되는 일터의 노사관계, 평가보상체계, 교육훈련 시스템, 노동자의 숙련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콜센터 시가 감정분석과 상담 코칭을 할 때 ...

요금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주세요.

고객님께 최근 출시된 서비스
가입을 권하세요.

고객님의 감정 상태가 '분노'입니다.
사과하세요.



작업장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 (OECD)

일자리 대체	불평등 심화
안전, 건강 위협	프라이버시 침해
편견과 차별	자율성, 행위능력, 존엄성 저하
투명성 부족	설명가능성 부족
책임소재 불분명	교섭권 위협

- <인공지능 기본법> 상 노동 분야에서 '채용'만 '고영향 AI'로 분류하고, 나머지 AI는 자유롭게 개발, 도입, 운영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목 차

1. '아틀라스'가 보여주는 풍경
2. 인공지능과 노동
3. 시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대응

AI를 교섭과 투쟁의 주요 의제로!

- AI와 관련하여 어떤 요구를 하고 무엇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가?
- AI에 관해 교섭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세계를 보다

“AI가 밥그릇 뺏는다” 파업 나선 할리우드



라스베이거스 호텔·카지노 노동자들 95% 찬성 롤로 파업 결의

입력 2023.09.28 10:01



“작가가 넷플릭스를 이기다”



Ghost Workers in the AI Machine:

U.S. Data Workers Speak Out About Big Tech's Exploitation
AWU-C



“AI 기계 속 유령노동” ... 데이터 노동자들, 빅테크 기업 상대 투쟁



전미통신노조, AI 관련 조합원 워크숍

프랑스 라이더 노동자들의 투쟁



스페인 라이더법 제정 투쟁 승리



UNEMPLOYMENT

BIAS

ETHICS

~~AI TO REPLACE
HUMAN REPOR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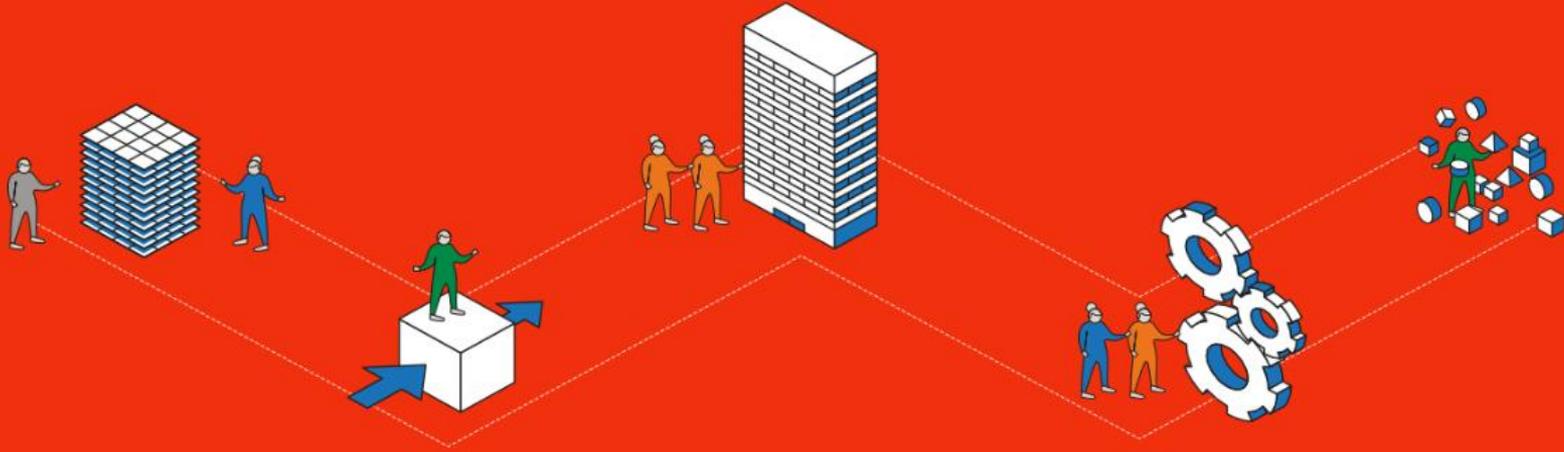
TRUTH

미국 언론노동자, AI에 맞서는 “뉴스는 싸구려 기성복이 아니다” 캠페인

NEWS ~~NOT~~
SLOP



QU'EST-CE QUE DIAL IA ?



프랑스 노동조합 주도로 18개월의 교육과 논의를 통해 구축한 AI 관련 교섭 지원 플랫폼
(<http://dial-ia.fr>)

AI에 관한 입법 및 단체협약 체결

<p>실질적 교섭권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개발 및 도입에 대해 일정 기간 전에 구체적 사항을 포함해 노조에 통보 • AI 개발/도입과 관련된 노사 협의 또는 합의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AI 도입 계획할 시 노사 협의 또는 특별교섭 • AI 운영 과정에서 정례적 협의 • 노조가 AI에 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문 비용 회사 부담)
<p>AI 관련 거버넌스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설계 시점부터 안전보건 문제 검토를 위한 노조 참여 보장 • 신기술 검토 시 그 선정, 설계, 구축, 검증 과정에 노조 참여 • 새로운 기술 활용에 따른 고용 조건 변화 시 노조 참여 보장 • 연간 디지털화 계획 노사 공동 수립 및 노사협의회 논의
<p>고용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해고, 직위 폐지, 복리후생 축소를 위한 AI 사용 금지 • 인력 수준과 기술 사용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함

AI에 관한 입법 및 단체협약 체결

데이터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에 학습시킨 자신의 데이터 열람 및 이의 제기 권리 보장• 노동자 5인 이상 집단 단위로만 데이터 집계, 분석 (개인별 추적 금지)
전자감시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정 분석, 눈동자 감식,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강요 등 전자감시 제한• 노동자에게 전자감시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적용되는 종류 알릴 것• AI 학습을 위해 수집된 정보를 노동자 평가에 사용하지 말 것
인간에 의한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금지 (최종 의사결정은 인간에)• 의사결정 기준과 과정에 대해 설명 가능해야 함
프라이버시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자 프라이버시 침해 금지• 디지털 단절권(일-생활 분리)

기술(권력)에 관한 대중적·민주적 통제

- 기술 설계는 사회의 제도를 설계하고 권력관계를 재편한다.
- 어떤 일을 자동화할 것인가,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다.

‘노조할 권리’에 더 해로운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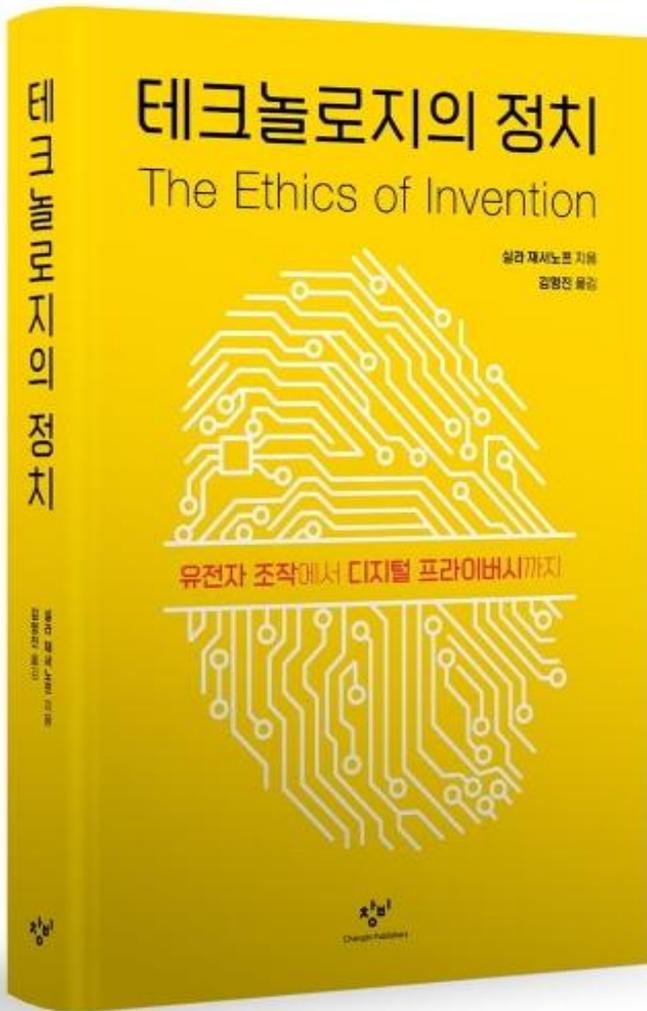
VS.



기술이 통치하는 세계에서 인간의 권리를 되찾으려면 권력이 어떻게 기술시스템에 위임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임은 자유에 대한 근본적 위협으로 간주된다. 입법과 기술 설계는 모두 위임을 포함한다. 전자는 국회의원, 후자는 과학자, 엔지니어, 제조업체들에게 맡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는 기술시스템에 권력을 넘겨주는 것보다 인간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에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써왔다.

- 실라 재서토프, <테크놀로지의 정치>



‘존엄한 삶과 노동’에 기초한 AI 담론 형성

- 놓쳐버린 질문들 또는 던져볼 기회조차 빼앗긴 질문들
 - 어떤 기술 개발이 시급한가? 중요한가?
 - 문제 해결 방법으로 기술 개발이 가장 효율적인가? 유일한 방법인가?
 - 어떤 일을 자동화해야 하는가?
 - 존엄한 삶과 노동을 위해 AI가 왜 어디에 필요한가?



발빠른 화재 진압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AI인가'라는 질문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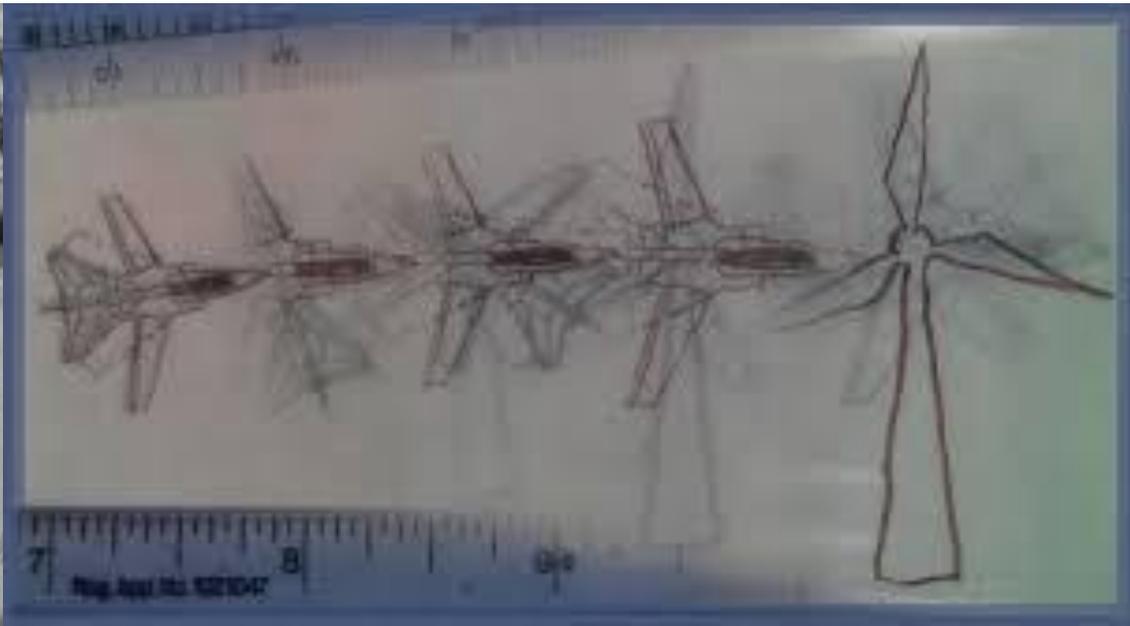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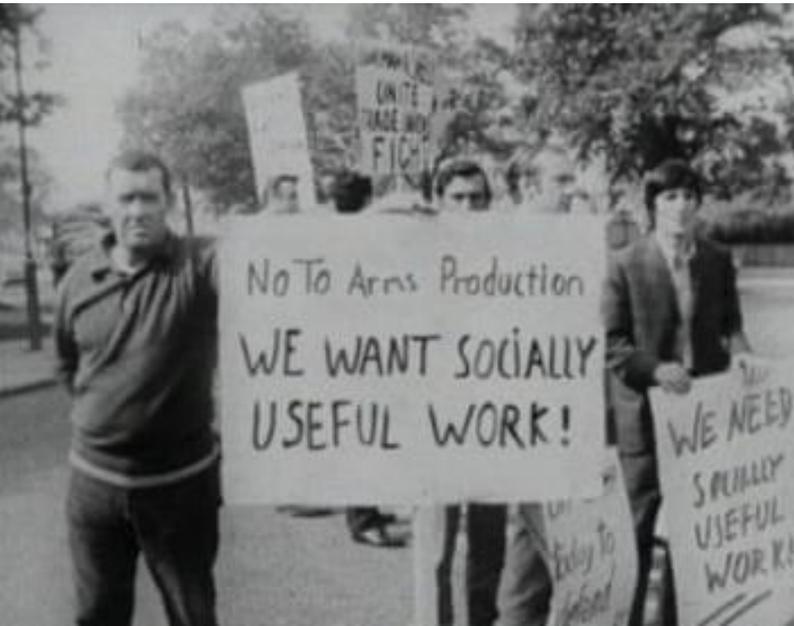
우리의 답은 “존엄한 삶과 노동을 위한 AI”

사회적으로 이로운 노동,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

-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곧 ‘어떤 노동이 필요한가?’
-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노동, 사람의 필요에 기여하는 노동, 공동체와 자연을 돌보는 노동
- 그리고 그 노동을 존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구조조정에 직면한 루카스항공 노동자들의 질문

“우리는 콩코드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 있는데,
왜 연금에 의존하는 노인들을 보호할 보일러는 못 만드는가?”



사업장 내 임금과 복지에만 머물지 않고

- 아틀라스가 보여주는 또 다른 풍경(노동운동의 현실)
 - 기업 단위의 임금 인상, 복지 향상, 고용 보장이 갖는 한계
 - 사회적 발언과 대응이 없는 사업장 단위의 '노사합의 요구'
- 노동과정에 대한 관심, 사람과 기술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조직적 활동 의제로
- 산업, 지역, 전 사회적인 노동자들의 연결과 조직화, 그리고 교섭과 투쟁

다시, 정의로운 전환

- AI의 일자리 위협과 노동권 후퇴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넘어 노동자가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
- “AI 확산에 발맞춰”가 아니라 “존엄한 삶과 노동에 발맞춰” 노동의 재배치와 기술의 재구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변화

자원 수탈과 과도한 에너지 사용을 무릅쓰고

인간의 노동을 절약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데이터 집중과 독점을 강화하는

폭력적인 AI 광풍에 맞서기 위해

만나요! 노동X기후정의X인권